

## 성적지상주의가 문제의 발단이다

교사직은 예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으로 알려져왔다. 특히 인격에 있어서나 지도력에 있어 자질이 부족한 교사일수록 업무스트레스는 가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이를 스스로 자제할 힘을 잃고 오히려 상승효과까지 가중돼 더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이상성격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환자들은 증세가 점점 심해져 인격파탄으로까지 갈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이런 교사들을 발견해내어서 치료하는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런 치료조치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대구시교육청 장동만 교육정책국장은 17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체조사결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현재 5명 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조만간 질환교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을 국립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한다.

장 국장은 “인권위원회와 협의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들의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하겠다” 하고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심의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심의해 휴직

을 권유하고, 치료해도 낫지 않으면 퇴출시킴 방침”이라 했다.

이에 대해 정순천 의원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의 정신질환 문제를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교원들 중에는 ‘신경증’ ‘우울증’ 뿐 아니라, 알코올중독증, 도박중독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매질하는 ‘체벌중독증’ 교사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교육 파괴 요인’이다. 체벌이 일시적으로 학업성적을 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어가고, 공포감·분노가 쌓여 성격이 비틀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대구 0고교의 ‘매질 200대’ 사건 이후 인터넷에는 이 문제교사에 대한 고발의 글이 쇄도한다. 고3 수업시간중 격투기 전문 케이블방송 비디오를 상영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적인 체벌을 자행하고, 수업중 허리띠 버클로 학생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사들중에도 상습적 체벌교사가 있다고 했다.

성적만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비교육적, 인권침해적 징벌도 묵인되는 ‘성적지상주의’가 학생을 망치고 교육을 병들게한다.